

목적선언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전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제자양육), 모여 영적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예배),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나눔선교)

새벽묵상

매일 경건 (새벽기도)

월(30) 계 22:1-5 - 이해성 강도사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 하리라

화(31) 계 22:6-21 - 최상민 목사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며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수(1/1) 요 1:1-8 - 송구영신예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목(2) 요 1:9-18 - 김현진 목사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는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

금(3) 요 1:19-28 - 김현진 목사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나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를 내가 보았음이니라

2024년 성경읽기표

월(30)	화(31)	수(1/1)	목(2)	금(3)	토(4)	주일(5)
계 19-20	계 21-22	창 1-3	창 4-6	창 7-9	창 10-12	창 13-17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안내

주일 예배	주일 1부	주일 오전 9:00	2층 분당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2층 분당
	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 2:30	2층 분당
주일 교육 부서 예배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제1교육관
	유초등부	주일 오전 10:50	제2교육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40	제3교육관
	대학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제3교육관
주간 예배	수요일 예배	수요일 오후 7:30	2층 분당
	금요일 예배	금요일 오후 9:00	2층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2층 분당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3:12)*

참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1970년 11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여 오던 중 지역재개발로 인하여 1996년 6월 23일 고양시 일산구 송산동 현위치에 교회터를 성하여 연건평 800여 평의 교회당을 건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된교회 4대 비전

1.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인재양성-기독교학교, 학사의 집 건물)
2.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선교네트웍-세계모든나라 선교사 파송)
3.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교회(이웃에게 봉사-문화센터, 공동체마을 설립)
4.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정연구소, 가정치유사역)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운 동행 생명의 공동체

2024년 표어

경건회복·부흥

예배와 교제 | 교육과 양육 | 선교와 봉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를 땅 끝까지 선포하라...



CHAM DOEN Presbyterian Church

목회칼럼

< 나는 일어서리라 >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걸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부터 걸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날마다' 성전에 올라왔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세 번의 정해진 시간에 예배와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유대인들과 미문 앞 걸인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날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마한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걸인에게 준 것은 몇 푼의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행3:6)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도 이 걸인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도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즉 성령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치는 걸인은 단순히 행색이 초라하고 불쌍한 장애인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맨 먼저 그가 찾았던 곳은 '성전 안'이었습니다. 평생 성전 밖에만 있던 그가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바램이 아닌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2025년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가정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참된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송산로157번길 59 TEL.031)976-6993~4 FAX.031)976-6997

원로목사 장석락 담임목사 김현진
Pastor Emeritus. Suk Rak Jang Senior Pastor. Hyun Jin Kim

